



제68회 출판포럼서 지속성장 방안 모색

‘한국 출판의 지속성장 기반 구축 방안’ 중간보고·토론 진행

제68회 출판포럼이 대한출판문화협회와 한국출판연구소 주최로 지난 9월 29일 출판문화회관 강당에서 열렸다. 이번 출판포럼은 한국출판문화진흥재단의 지원으로 한국출판연구소가 수행중인 ‘한국 출판의 지속성장 기반 구축 방안’ 연구의 중간보고를 겸한 토론회로 진행됐다.

글 | 임남숙 기자 sang@print.or.kr

이날 행사에서 고영수 대한출판문화협회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출판인을 만나면 요즘처럼 어려운 시기는 없을 정도다라는 말을 많이 듣는다. 특히 단순히 일시적인 경기불황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구조적인 문제로 인한 장기전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큰 문제다”라고 말했다.

이어 김종수 한국출판연구소 이사장의 사회로 고중언 그래픽트너스(주) 파트너 컨설턴트가 ‘한국 출판의 지속성장 방안은 무엇인가’를 놓고 주제발표를 진행했으며, 박윤우 대한출판문화협회 상무이사(부키 대표), 김기욱 한국출판인회의 정책위원장(한즈미디어 대표), 부길만 한국출판학회 회장, 한기호 한국출판마케팅연구소 소장, 박익순 한국출판저작권연구소 소장, 고경대 문화유통박스 출판정보연구개발팀 연구원이 토론에 참가했다.

출판선진국, 서점통해 도서 수요 진흥

출판산업은 경기침체로 인한 수요 감소, 매체환경 변화 및 디지털기 보급확대로 인한 독서인구 감소, 다양한 공급채널의 수요 잠식 등 3중고로 인한 위기를 겪고 있다.

국내 출판시장 동향을 살펴보면 학습참고서와 전자출판업이 소폭 증가한 가운데 서적출판업 전체 매출액은 연평균 2.5%

감소했다. 출판사 및 발행종수가 감소하는 가운데 평균 발행종수는 늘어 한계에 다다른 출판사는 도태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재무측면상 매출원가는 큰 폭의 변동이 없으나 판매비 증가 등으로 인해 수익성은 낮아지고 있으며, 소형출판사들의 재무구조 및 수익성 악화가 두드러지고 있다.

서점 역시 전체적으로 감소하는 가운데 160㎡ 미만 소형서점들은 감소폭은 증가하고 330㎡ 이상 서점은 증가하면서 양극화를 이루고 있다.

해외출판업계의 도서수요 진흥사례를 살펴보면 미국서점협회는 서점인교육과 경영합리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회원사를 대상으로 정기적인 서점인 교육을 매년 진행하고 있다. 영국의 북트러스트는 영국내 독서문화를 선도하고 있고, 어린이에게 책을 무료로 나누어 주는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핀란드서점협회는 정부지원을 통해 서점인 대상 MBA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이러한 사례들을 살펴볼 때 도서수요 진흥정책은 외형적으로는 국내와 해외 사례에 큰 차이가 없지만 출판선진국에서는 책의 소비통로인 서점의 경영합리화와 서점과 출판사간의 협업, 서점인 교육 등이 진행되고 있다는 점이 국내와 다르다. ↻